

기자가 본 2007 육계산업 결산

# 연말 자조금사업 출범 불황 털어낼 희망으로

2007년 육계산업은 공급과잉과 소비위축으로 인해 연중 불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한해였다.

이미 2004년부터 2006년부터 장기 불황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됐지만 지난해 생산성 악화라는 예기치 못한 호재(?)로 계열사들은 연중 닭고기가격 상한가로 호황을 누렸지만 이러한 호황은 태풍전의 고요함처럼 불황의 크기를 더욱 키우는 결과만을 낳고 말았다.

2006년 대호황을 누리면서 각 계열사들은 종계입식물량을 대폭 늘려 잡았고 이에 따라 원종사들이 원종계의 수입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미 2005년 하반기 입식된 원종계들이 물량을 쏟아 내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잠재력이 크게 늘기 시작하더니 이들 물량은 AI발병으로 인한 소비위축 시기와 맞물



김재민  
축산경제신문사 기자

리면서 헤어 나오지 못할 불황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와중에 2006년 원종계 수입물량은 2005년 입식물량을 다시 추월했고 마니커마저 원종사업 참여 선언을 하면서 올 2007년은 닭고기 가격이 연중 하한가를 달릴 수밖에 없었다.

## 육계 산업 계열화 올인 폐단 드러나

육계시장을 계열사들이 주도하면서 전체 시장의 물량은 고려하지 않고 자사 물량을 계속 늘리면서 기싸움에 들어간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열사들은 시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매년 몇% 이상 성장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축산관측 등을 통해 향후 있을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자칫 자사만 물량을 줄일 경우 경쟁업체만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보기 때문으로



각종 관측자료를 통해 발표된 자료에도 물량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늘리기만 하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육계산업에 자리잡고 말았다.

이전 사계 물량이 30% 이상 점유할 때만 하더라도 사계업자들은 3개월 뒤 과잉이 예상될 경우 상당수의 농가들이 병아리 입식을 자제해 물량을 자연스럽게 줄여 나갔지만 계열사가 80% 이상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불황이라고 이야기만 했지 어느 계열사도 물량 줄이기에 나서지는 못했다.

원종계 물량을 줄이면 쉽게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가금수급위 차원에서 물량감소를 결의하고 원종사들을 불러들여 협조를 요청했지만 공급과잉상황이라는 원론적 상황에만 동조할 뿐 계열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 물량 줄이기는 어렵고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원론적 이야기만 하다 그치고 말았다.

현재 육계산업에서 수급을 조절할만한 주체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급속한 구조조정을 불려와 육계산업을 다시 한 번 휘몰아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누가 손해 봤나

장기불황에 상장된 주요 닭고기 회사들의 주가는 연중 하한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계열사들은 늘어나는 물량을 처리할 방안이 없자 급기야 종란의 식란처리로 계란시장까지 교란시키는 등 전체 양계산업을 흔들고 말았다.

이렇게 1년을 끌어온 장기불황에도 큰 손해를 봤다며 사업에서 물러난 기업은 한곳도 없다. 어떤식으로 버텼나 했더니 병아리 값

인하로 인해 상당부분의 손해를 털어냈기 때문에 연중 병아리 값이 100원대에서 머무르면서 많은 종계장들이 경영압박에 시달려 왔다.

계열사들이 병아리를 자체 소화하지 못한 채 시장에 계속해서 플라 종계업자들이 자체 물량을 줄이기는 하지만 시장에는 계속해서 병아리가 넘쳐나고 생산비인 300원대에 도달하지 못한 채 100원과 200원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는 주요 계열사에 종계업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간담회를 요청했고 계열들이 종계물량을 어느 수준까지 늘릴 것인지 지금의 종계업자들의 위치는 어디까지인지 고민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렇게 계열사 간 경쟁 속에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종계·부화업자들의 위치는 향후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계열사에 더욱 종속되면서 물량조절의 마지막 보루인 종계·부화인의 역량은 사실상 사라질 위치에 처해 있다.

### 양계분야 등급제 포장유통의무화 시행

양계분야 최초 등급제로 한국식품연구원이 닭고기 등급과 유해물질 잔류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KS마크를 부여했고 KS닭고기라고 광고까지 했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변해 HACCP인증, 우수브랜드 인증에 이어 닭고기 등급제 시행까지 하면서 시장은 각종



인증에 업체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지난봄부터 본격 시행된 닭고기 등급제의 경우 1등급 출현율이 90%를 넘는 가운데 불필요한 등급제 시행이라며 업계의 반발을 사고 말았다.

학교급식법 내에 현재 실시되지도 않고 있는 등급제를 끼워 넣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업체들은 등급제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가격이 연중 바닥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등급제는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이미 1등급 출현율이 90%를 넘어서 있는 닭고기는 어떤 목표로

시행되는지 업체들은 정부의 탁상행정에 속 알이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양계산물인 계란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은 1등급란이 일반란이나 등급이 떨어지는 계란보다 더 높은 수익을 농가에 주고 있으나 닭고기의 경우 가격차별 효과마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 포장유통의무화로 일일 8만수 이상 도계하는 5개 대형도계장들이 포장유통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비용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수입산 닭고기와의 차별화와 매장에서의 교차오염 방지라는 목표로 추진된 포장유통의무화는 당초의 목표로 어디로 하고 과도한 규제로 계열사들을 범법자로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벌크 포장의 경우 중간 대리점에서 포장을 해체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장방법까지 세세히 기록함으로써 대리점과 계열사 모두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포장유통의무화 이후 발생한 비용의 분담 문제 등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포장유통의무화를 준비해온 대형 계열사들과 달리 내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적용을 바든 5만수 이상 도계장들의 경우 비용부담 문제와 세세한 규제 조항으로 인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자조금사업 드디어 성립

대의원선출 이후 3년째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육계자조금사업은 다른 축종에서 양계분야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자는 이야

기가 회자될 정도로 진전이 없었다.

지난해 계속된 관리위원과 감사선출이 불발되면서 사실상 육계의무자조금사업 보다는 육계분야는 임의자조금사업으로 정착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연말 관리위원 및 감사 선출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게 됐다.

연말 관리위원 선출 성공은 소비부분의 활성화로 육계산업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어찌 됐든 막판 관리위원과 감사선출에 성공하면서 내년도 사업 추진이라는 희망을 쏘긴 했지만 이미 만신창이가 된 육계산업을 볼 때 지난해 사업 출범으로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재 한우나 양돈과 같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타 축종과 달리 육계분야 자조금은 의미가 남다르다. 생산량이 소비량에 턱없이 부족한 한우와 양돈산업과 달리 생산이 소비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육계자조금은 바닥에 떨어진 소비회복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조금 사업이 장기불황의 그늘을 걷어 버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업계에서 거는 기대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앞으로 있을 관리위원장 선출문제, 자조금 사무국 구성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대의원총회의 추인 절차가 남아있다. 양계협회, 계육협회, 농협 등의 준비단체는 욕심을 버리고 자조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엔 만전을 기해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자조금사업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랄 뿐이다. **양계**